

서 평

어디로 갈 것인가, 형제여?

최태섭, 『한국, 남자』 (은행나무, 2018)

박정훈,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내인생의책, 2019)

최승범,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생각의힘, 2018)

손희정*

1. ‘남페미’라는 명명의 곤란함

최승범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2018), 강준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2018), 최태섭 『한국, 남자』, 위근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2019), 박정훈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2019), 그리고 서한영교 『두 번째 페미니스트』(2019). 최근 2년 간 페미니즘의 자장 안에서 등장한 남성 작가들의 책이다.

이런 남성 작가의 책은 종종 ‘남페미 책’으로 묶이곤 한다. 하지만 이를 정확한 명명이자 범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도는 물론이거니와 태도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는가 아닌가 역시 필자 마다 다르다. 강준만의 경우에는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 어느 모로 보건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연구원(jay.sohn@icloud.com)

© 201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자격 미달”이므로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쓴다(강준만, 2018: 7). 최태섭은 남성성 연구가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방법론의 자장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 남자』를 페미니스트 남성성 연구의 역사 안에 위치시키지는 않는다. 박정훈은 “나는 어떤 형태의 페미니스트가 될까? 혹은 될 수 없을까?”(박정훈, 2019: 267)라는 성찰적 질문 자체를 자신의 ‘과정 중에 있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최승범과 서한영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한다. 반면, 대중 페미니즘 담론의 장에서 ‘대표 남페미’로 통하는 위근우는 상식적인 인간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인 나머지, 그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탐색하지 않아도 남페미라는 말 자체는 이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페미니스트면 페미니스트지, 남성-페미니스트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별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는 ‘여의사’, ‘여교사’ 등과 같은 명명에 대한 미러링으로서 남성을 성별화된 존재로 가시화하는 것 외에, 남페미란 말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가?

기실 남페미란 말은 페미니즘이 고심해야 할 여러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만을 말하는 것이 페미니즘인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가? 그렇다면 남자는 페미니스트일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인 남자란 뭘 원하는 자인가? (그러니까 ‘페미코인’¹⁾ 등과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201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은 일종의 자원인가?) 페미니스트란 완전체가 아니라 과정체라는 말은 그저 여자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인가?

본 서평은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한국, 남자』,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

1) ‘페미코인’은 페미니즘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합성한 신조어로 페미니즘 및 그와 관련된 논쟁에 편승해 주목을 끌고 사회적 인지도를 올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트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여기에서 남페미라는 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담론의 네트워크의 성격과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 내는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한(국)남(자)의 계보: 최태섭의 『한국, 남자』

소위 ‘남페미 책’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작업들의 관심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한국의 ‘분노하는 젊은 남자들’이다. 최태섭의 『한국, 남자』는 이들을 ‘억울한 남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그 계보를 탐구한다.

『한국, 남자』는 우선 “지구 곳곳에서 부상하고 있는 ‘남자 문제’를 살핀다.” 중국의 편칭(憤靑)은 “2000년대 중반쯤 중국의 온라인을 중심으로 등장한 애국 청년”들이다. 그들은 애국주의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려움을 타자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는 폭력적인 남성들에 더 가깝다.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등장하게 된 남성과잉 사회(비순달, 2013)와 절묘하게 만난 전지구적 신자유주의화가 불러온 남성성의 불안이 이런 ‘남자 문제’를 촉발한다.

이어서 책은 중국의 편칭과 궤를 함께 하지만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화나고 억울한 청년 남성의 기원을 추적한다. 최태섭은 그 기원을 무인보다 문인을 높이 샀던 조선시대로 잡는데, 이미 그때부터 여성 노동력은 성별이원제가 조형한 견고한 성역할 아래에서 착취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라고 행복했던 건 아니다. 한국전쟁기, 산업화기를 지나면서 군인이자 노동자였던 남성들은 지배하는 남성들의 이익에 따라 착취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그 남성들의 고통을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여성혐오 문화로 위로했다는 점이다. 남성들은 여자를 소유하는 강한 남성에 대한 상찬, 즉 남성성의 신화로 회유되었다. 한국남자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임을 물을 대상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고 여성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남성성의 신화는 민주화 운동 및 노동 운동에서라고 다르지 않았고, 사회 변혁 운동 안에서도 계속되었던 성차별과 성폭력은 한국의 지배적인 가부장제 문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소비사회가 열리고 새로운 남성성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IMF 이후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망령이 지배하는 서러움의 시대가 시작된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유행어로 포착되는 고개 숙인 아버지 판타지는 남녀 공히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남성들만의 어려움’으로 치환해버린다. 2000년대 이후 ‘억울한 남자들’의 놀이공간인 디지털 세계에서 등장하는 디지털 남성성은 이런 역사적 흐름 안에 놓여있다.

『한국, 남자』는 지금까지 한국 보편사라고 여겨졌던 역사를 ‘남성성의 역사’로 성별화한 후 “한국남자라는 곤란한 존재들”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 책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었던 한국 남성성 연구 성과를 촘촘하게 정리하면서 하나의 줄기로 엮어내고, 저자의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이후 남성성 연구로 연결시켰다. 조선시대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책의 부제가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인 이유는 아무래도 <아들과 딸>이 방영했던 1990년대 초부터 “군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남자들”에 대한 조롱인 ‘군무새’라는 말이 등장했던 2010년대 페미니즘 리부트기(期)까지가 이 책의 진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 친절함과 성실함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한국, 남자』는 2011년 ‘일베’가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여성혐오 문화의 근원지이자 온상으로 지목되어 꼬리자르기 당했던 ‘디지털 남성성’의 기원을 한국 남성성의 역사 안에서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특정 세대, 특정 공간을 점유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밝혀낸다. 일베와 청년 남성을 괴물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순결함’을 증명

하고자 하는 기성세대 남자들, 특히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무해한 페미니스트 엘라인가?”라는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별화된 세대론’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반론이다. ‘줄쓰큰’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다.

3. “이상한 남자들”의 이야기: 최승범의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와 박정훈의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하지만 한국사회에 ‘억울한 남자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최태섭은 『한국, 남자』의 끝에 “한국 사회가 주조하고자 했던 남성성에 맞서 그것을 거부하고, 교란하고, 저항하고자 했던 이상한 남자들의 이야기”(최태섭, 2018: 277)를 담지 못한 것이 이 책의 한계라고 적고 있는데, 이 이상한 남자들 중 한 부류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남(자)’라는 성별화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남페미들이다. 최승범의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이하 『저는 남자고』)와 박정훈의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하 『친절하게』)은 이들의 태도와 활동을 잘 볼 수 있는 텍스트다.

『저는 남자고』의 작가 최승범은 남자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을 가르치는 남자 교사다. 이런 특수한 위치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을 설득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에세이를 써내려 간다. 남성가장 생계부양 모델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가정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 국어 교사로서 대면하게 되는 문학 속 여성혐오 비판, 그리고 남고의 학생들과 어떻게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에 이르기까지, 책은 교실이라는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라면 무조건 백안을 뜨는

이들과 접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른 독자들에게도 훌륭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최승범은 “학교에는 더 많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친절하게』는 2016년 이후 온라인에서 논쟁의 장에 올라왔던 젠더 이슈를 현장감 있게 따라간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남초 커뮤니티 분석에서부터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비판을 지나 래퍼 산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기자 출신의 평론가답게 팩트 체크에 근거를 둔 정확한 사건 기술은 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지난 3-4년 간 대중 페미니즘 담론의 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논쟁들이 오고갔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친절하게』는 진정으로 “온라인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저자가 온라인에서 쓴 글을 모아 책을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이 책이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페미니스트 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책의 논의는 한국 네티페미니즘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으로 수렴된다.

이 두 권의 책은 ‘남페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남성성’이 잘 상상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균열이 되었다. 하지만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는, 아쉽게도, 이미 공인된 안전한 선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건 아무래도 이 책들이 말을 걸고자 하는 독자층이 ‘억울한 남자들’이기 때문일 터다. 위근우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공통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선 더 가차 없이 나의 ‘옳음’의 근거를 확보하고 상대의 ‘틀림’을 논박하는 논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위근우, 2019)고 쓰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남페미 책들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전선을 그어 토론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질문과 그에 대해 답하려는 복잡한 사유가 아니라, 합의된 수준의 논의를 펼쳐내야 한다. 사실 이 정도 이야기도 한국사회에서는 잘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니 “더 나은 논쟁”(김은실 외, 2018)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결국 이 책들은 최태섭이 도발적으로 질문하고 박정훈이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혹은 질문)에 다다른다. “남성들이여,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변화할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 그리하여 “어디로 갈 것인가, 형제여?”(최태섭, 2018: 270; 박정훈, 2019: 255).

4. 반성과 개심의 이야기: 젠더 테크놀로지로서의 ‘남페미 서사’

최승범과 박정훈은 변화를 선택한 이들이다. 덕분에 『저는 남자고』와 『친절하게』는 서로 꽤 다른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점을 공유한다. 그건 바로 반성과 개심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는 두 책만의 특징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관습적’ 재현이다. 이 관습에서 저자들은 “나 역시 일반적인 한(국)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각 성의 계기들에 대해 회고한 뒤, 여전히 부족하므로 언제나 “반성, 반성, 반성”(박정훈, 2019: 263)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페미’ 담론 네트워크의 한 쪽을 차지하고 있는 오찬호(2016)의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는 이런 제사(題辭)로 시작한다.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남자로’ 산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 “무서운 일”로부터 깨치고 일어서는 각성과 진화의 과정은 남성 작가가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을 쓰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해준다. 그에 자신이 없다면, 강준만처럼 “차마 페미니스트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선은 다했으므로, 나의 정성만은 알아다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강준만은 페미니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보다는 “맨스플레인을 배격하면서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해 시공간적으로 전체 맥락의 그림을 보여주는 데 치중”(강준만, 2018: 11)하겠다고 밝힌다. 아카이빙과 큐레이팅을 통해

서만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반성과 개심의 서사에 수반되는 또 하나의 장르 관습은 이들이 남페미로서 자신의 몫과 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맨스플레인을 강박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건 강준만만은 아니다. 모든 남페미가 남자의 끈대질이 될 수도 있는 여성들에 대한 발화를 멈추고, ‘본인과 같은 남자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에 몰두하고자 한다. 이것이 남페미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자신들의 자리다. 저자의 남성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책 『다른 게 아니라』를 쓴 위근우 역시 책 외부에서는 이런 고정된 남페미 역할에 대해 재차 강조한다. 물론 이는 남성 작가의 성찰의 결과다. 그렇게 새로운 남성성으로서 ‘조신한 남자’의 싹이 틈다.

젠더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테크놀로지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젠더는 외부 없는 전지전능한 매트릭스가 아니다. 이 젠더 테크놀로지에는 지배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항 담론 역시 개입한다(Lauretis, 1987). 남페미의 작업 역시 젠더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남페미 서사는 한국 사회의 남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자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젠더의 외부를 상상하고, 박정훈의 말처럼 “여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새로운 남성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은 일종의 대항담론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들의 작업뿐만 아니라 최태섭, 박정훈, 최승범, 위근우 등 저자 본인이 전시하는 ‘남페미’의 형상 역시 일종의 텍스트가 된다. “이상한 남자들”이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남성성의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다양했을 것이 분명한 ‘성찰/들’이 대동소이한 과정을 따라 ‘조신한 남자’라는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역시 이 상한 일이다.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으로 상상되는 남성)성과 페미니즘이

만나는 길이 단 하나일 뿐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인간을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하여 두 개의 성별로 나눌 수 있다는 믿음체계인 ‘성차(sex)’ 자체에 도전해 온 페미니즘 담론 안에서 ‘남페미’와 ‘(여)페미’를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초래되는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5. 과정체로서의 남-페미: 남페미에서 ‘남(男)’을 떼어내기

박정훈은 『친절하게』에서 이렇게 말한다. “여성들이 이만큼 판을 만들어 줬는데, 남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한 목인 내지는 동조다. 되도록 많은 남성들이 페미니즘 흐름에 조응해야 한다.”(박정훈, 2019: 317).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남페미’가 남성으로서 동참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그건 어떤 페미니즘이란 말인가?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수많은 줄기로 분기된 페미니즘은 남페미 서사 안에서 하나의 단일한 페미니즘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여성들의 피해자성과 남성들의 가해자성은 마치 운명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남성 작가 각자가 페미니즘에 대한 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공식적인 발화 안에서는 페미니즘의 의미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최승범과 박정훈은 “페미니즘은 여성인권 운동”이라고 못 박고, 최태섭은 “페미니즘은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에 대한 이론이자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 정도의 협소한 정의는 가장 안전한 정의임과 동시에, 책이 갖고 있는 전선의 ‘이쪽’에 있는 여성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 즉, 남페미 책의 대중성은 ‘안전한 페미니즘’ 안에서 획득된다는 의미다.

남성 작가가 쓴 세 권의 페미니즘 도서에 대한 서평을 청탁받았을 때, 작가의 성별을 중심으로 책을 묶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

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책을 읽어가면서는 (아직까지는) 이 작업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이고 관습적인 서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남페미’는 ‘남성’이 페미니스트일 때 그를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는, 그런 특정한 태도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특정한 페미니스트 담론을 일컫는 말로 한정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런 규정을 통해 우리는 의학적으로 지정되는 성차를 바탕으로 인간을 범주화하는 성적체계를 넘어서는 차이의 연대를 상상할 수 있을 터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남자들’이 이후 작업에서 ‘男’이라는 카테고리를 과감하게 깨고 나가기를 기대한다. 남페미 서사가 남성 젠더의 구성에 개입하는 젠더 테크놀로지인 만큼이나, 페미니즘의 의미를 규정하고 구성해가는 담론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남페미 서사는 지금/여기에서 페미니즘이 무엇인가 혹은 무엇일 수 있는가를 상상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페미니즘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하여 조신한 남페미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는 함께 성별이원제의 젠더 매트릭스를 깨자는 적극적인 연대에 대한 요청이다. 그 과정에서 ‘남성 작가’들이 무엇을 기꺼이 ‘포기’²⁾ 할지는 각 저자의 몫일 것이다.

2) ‘포기’는 래윈 코넬(Raewyn Connell)의 『남성성/들』에서 전유한 개념이다. 코넬은 이 책에서 페미니즘을 만나서 구축된 ‘새로운 남성성’을 “부드러운 남자들”이라고 범주화한다. 이 ‘부드러운 남자들’은 새로운 남자가 되기 위해서 삶에서 경제적 성공이나 명예, 여성에 대한 지배 등 기존에 영위해 온 어떤 가치들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친다(코넬, 2010). 여전히 남성들이 성별권력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상황에서 ‘페미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포기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때 무엇을 포기할 지가 그가 어떤 페미니스트가 될 지를 결정할 터다.

참고문헌

- 강준만(2018),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 서울: 인물과사상.
- 김은실·권김현영·김신현경 외(2018),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페미니스트 크리틱』, 서울: Humanist.
- 박정훈(2019),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남성문화에 대한 고백 페미니즘을 향한 연대』, 서울: 내 인생의 책.
- 비슨달, 마라(2013), 『남성 과잉 사회: 지워져버린 소녀들의 진실과 도래할 인류의 재앙』, 박우정 옮김, 서울: 현암사, Hvistendahl, M.(2011), *Unnatural Selection: Choosing Boys Over Girls, and the Consequences of a World Full of Men*, New York: Perseus Books Group.
- 서한영교(2019), 『두 번째 페미니스트』, 서울: 아르테.
- 오찬호(2016),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카리스마, 대한민국 남자 분석서』, 서울: 동양북스.
- 위근우(2019),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팔호 안의 불의와 싸우는 법』, 서울: 시대의 창.
- 최승범(2018),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파주: 생각의 힘.
- 최태섭(2018), 『한국, 남자: 귀남이부터 군무새까지 그 곤란함의 사회사』, 서울: 은행나무.
- 코넬, 래윈(2010),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옮김, 서울: 이매진, Connel, R. W.(1995), *Masculinities*, Cambridge :Polity Press.
- Lauretis, T. de(1987), "Technologies of Gender", in *Technologies of Gender: Essays on Theory, Film, and Fiction(Theories of Representation and Differen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30.